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 : 제주지역 중심으로

강차선, 박정환*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The Mediating Effect of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on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stereotypes of Gender role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Ability : Surveying residing in Jeju

Kang, Cha-Sun, Park, Jung-Hwan*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600명 중 408명(남, 127명, 여, 281명)이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피해경험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은 성폭력 허용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 성폭력 허용도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성폭력 허용도였다.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와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본연구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성폭력 허용도(29, $p=.000$)로, 성폭력 허용도에서 성폭력 피해경험(42, $p=.000$)으로 가는 영향력을 보여줬다. 매개의 효과성에서 간접효과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11, $p=.01$)에서 나타났고, 직접효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성폭력 허용도(28, $p=.000$)로, 성폭력 허용도에서 성폭력 피해경험(40, $p=.000$)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성폭력 허용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허용도를 낮추어 성폭력 피해를 감소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성평등적 인식이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낮아져 성폭력 피해가 예방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The survey for this study was administered to 408 (male, 127, female, 281) out of the 600 university students residing in Jeju with the inventory of gender role stereotypes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in (conjunction with the)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gender role stereotypes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Second, the relationship analysis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emonstrated that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ereotypes of gender role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giving rise to sexual violence in dating. In the investig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equation coefficients and path-mediated effects, the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of influence in this study, viz. gender role stereotypes to permissiveness (29, $p=.000$) of sexual violence and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to th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42, $p=.000$), were found to have an impact. In an indirec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arameters showed i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11, $p=.01$), direct effects were demonstrated from stereotypes of gender role to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28, $p=.000$) and from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to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40, $p=.000$). In the end, this implies that gender role stereotypes does not influence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directly, but indirectly by mediating th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Therefor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gender role stereotypes and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need to be reduced, so that sexual violence can be prevented. In other words, a higher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will lower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and this, in turn, will also prevent sexual violence.

Keywords : dating,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stereotypes of gender role, university student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Park, Jung-Hwan(Jeju National University)

Tel: +82-64-754-2167 email: edu114@jejunu.ac.kr

Received May 13, 2016

Revised (1st July 21, 2016, 2nd July 28, 2016, 3rd August 10, 2016)

Accepted August 11, 2016

Published August 31, 2016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발달적 측면으로 볼 때, 청소년 후기와 초기 성인기에 속하여 친밀성 획득과 이성관계의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기로서, 성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데이트 관계가 항상 로맨틱 할 수는 없고, 데이트 성폭력 피해는 친밀함을 전제로 발생한다. 즉, 각자의 성적 관심이나 성행동의 요구수준이 다를 때, 서로간의 생각과 기대 차이로 성적 갈등을 발생하게 하고, 때론 이러한 성적 갈등이 원치 않는 데이트 성폭력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2].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 ~ 20세 성범죄는 강간이 1,240건, 유사강간이 75건, 강제추행이 3,223건, 기타 215건으로 보고되었다[3]. 또한 이들 성범죄 중에서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피해자는 36,362명으로 하루 평균 20여명이 데이트 폭력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4]. 이렇듯 데이트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가 어떤 심리적인 경로에 의해 일어나는가?

인간은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태어나고, 사회가 원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성장하기 위해 각 성별에 적합한 가치, 태도, 행동, 특성 등을 배운다. 전통적으로 각 개인의 학습된 남성성과 여성성은 어느 지점엔가 연속선상에 있으며, 그것이 그 개인의 성역할 고정관념 정도를 나타낸다고 본다[5].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자신의 성에 대한 지도(sexual schema)를 형성하며, 이러한 성에 대한 지도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6]. 예컨대 자신의 갖고 있는 sexuality에 따라 자신의 선호하는 대상을 보게 되면 시각적으로 그 정보를 뇌에 전달함과 동시에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감정에 따른 행동과 태도가 나오게 된다[7].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성행동의 예측요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행동은 성폭력 허용도가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Radlove(1983)는 성적자극에 반응하는 생물학적 능력을 생체학적 체계라고 하고, 문화적 메시지를 내면화된 성을 심리사회적 체계, 그리고 개인의 성적 태도 및 신념에 관한 체계를 성적가치체계라 하고, 이 세가지 체계들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성간의 성행위에 대한 성적 허용성의 연구에서 ‘성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여러 가지 신체적 접촉을 받아들이는 정도’로 Reiss[8]는 정의하고 있다. Park[10]은 사

이버 음란물 접촉빈도에 따라 성폭력 허용정도가 높으며, 오래 볼수록 물리적 성폭력 허용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데이트 관계에서 키스, 애무, 그리고 성행위 중 어디까지 받아들이는가를 의미한다[9]. 예를 들면 성폭력 허용도의 형성은 청소년들의 SNS, 스마트폰, 인터넷등의 쉬운 접근으로 인하여 폭력 피해경험과 폭력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이 개인의 인식체계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폭력을 강화 시키거나 촉진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여 폭력의 사회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개인의 성격이나 세계관에 작용하여 잘못된 가치관, 즉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서 성행동으로 나타내게 된다[11].

성역할 고정관념(Gender-roll stereotype)은 문화가 성별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규정되는 행동이나 태도들을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사고, 태도, 행동양식으로 전수되어 습득하게 되면서 성별에 대한 전형적 특성들에 관한 신념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구별 짓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조화할 뿐만 아니라 적합한 행동, 활동, 직업에 대한 이분법적인 성역할을 말한다[6]. 예컨대 사회 안에서 ‘여성은 조용하고, 수동적이어야 되고, 남성은 적극적이고, 용감해야 한다.’라는 성역할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이렇듯 성역할 고정관념은 인간 발달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으로 성차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5], 개인의 감정, 인지, 태도 그리고 심리 사회적 적응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이 사회 문화에 참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의 관계에서 성역할 허용도의 매개 역할을 파악함으로써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는 완전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1.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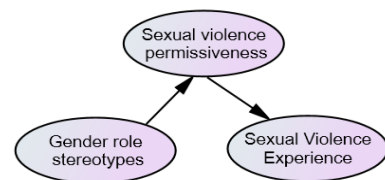


Fig. 1. A Study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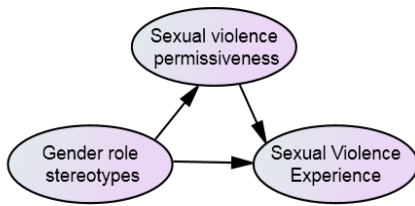


Fig. 2. Competition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대학생들의 데이트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 까지 제주지역 4개 대학(J 대학교, H 대학교, K 대학교, HB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조사는 각 대학의 교양강의 시간에 교수님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 준후 조사를 의뢰하였고, 설문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밀보장, 익명처리, 연구목적에만 사용 등을 설명 하였다. 4개 대학에서 설문은 600명을 설문을 받았으나, 무응답과 불성실 응답으로 판명된 192명의 자료를 제외한 408명(남: 127명, 여: 281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10문항, 성역할 고정관념 15문항, 성폭력 허용도 10문항, 성폭력 피해경험 11문항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1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김선영(1998), 신성자(1997), 김은주(1997), 장윤경(2002)의 연구와 Bem의 'Bem Sex-Role Inventory : BSRI(1981)'를 수정하여 사용한 남현미(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서 각각의 문항을 1점에서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총 15문항이다. 신뢰도는 남현미(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 도구는 성적공격, 성차별, 성 이중규범,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구성되었다.

2.2.2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허용도 척도는 Foo와 Margolin(1995)이 개발하고 박미란(2007)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박미란(2007)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 허용도 도구는 물리적 성폭력 허용도, 언어적 · 정신적 성폭력 허용도로 구성되었다.

2.2.3 성폭력 피해경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은 장윤경(2002)이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1문항의 5점 척도로서 점수의 범위는 11점에서 5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장윤경(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도구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경험, 심리적 · 언어적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구성되었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피해경험 간의 직 ·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통계적 모델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18.0과 AMOS 20.0의 다변량 정규분포성(multivariate normality) 검증절차를 통해 관측변인들에 대한 다변량 정규분포성과 변인별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델 적합도는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ML) 절차를 적용하여 적합도 지수인 χ^2 값(=CMIN)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통해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상관분석

Table 1. Relationship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result (N=408)

	F1	F1-1	F1-2	F1-3	F1-4	F2	F2-1	F2-2	F3	F3-1	F3-2
F1	1										
F1-1	.78**	1									
F1-2	.70**	.48**	1								
F1-3	.74**	.46**	.43**	1							
F1-4	.76**	.45**	.33**	.34**	1						
F2	.25**	.12*	.15**	.25**	.21**	1					
F2-1	.19**	.06	.14**	.22**	.15**	.90**	1				
F2-2	.26**	.15**	.13**	.22**	.24**	.92**	.65**	1			
F3	.16**	.08	.09	.14**	.16**	.34**	.25**	.37**	1		
F3-1	.19**	.12*	.11*	.16**	.16**	.30**	.20**	.34**	.94**	1	
F3-2	.11*	.01	.05	.09	.14**	.34**	.27**	.35**	.91**	.71**	1
M	2.10	2.46	1.87	2.01	2.05	1.57	1.48	1.67	1.18	1.21	1.14
SD	.42	.51	.47	.58	.70	.58	.60	.69	.48	.56	.48
W	-.26	-.55	.14	.13	.07	1.83	2.14	1.28	4.04	3.71	4.38
K	.35	.61	-.25	-.32	-.66	5.49	6.92	2.15	20.17	15.62	22.00

*** p<.001, ** p<.01, * p<.05

F1: stereotypes of gender role, F1-1: Sexual attacks, F1-2: Sexual discrimination, F1-3: gender double standards, F1-4: masculinity, femininity, F2: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2-1: Verbal mental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2-2: physical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3: Sexual violence experience, F3-1: Physical Sexual violence experience, F3-2: Verbal mental Sexual violence experience

본 연구에서 먼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의 관측변수 간 상관관계는 다음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인 성역할 고정관념, 성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피해경험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허용도, 그리고 성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3.2 성폭력 허용도 매개모형

3.2.1 측정모형 검증

[Table 2]는 모형적합도로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연구모형인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이전 연구들을 바탕으로 성인식도,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한 매개모형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1(2모형:경쟁모형) ($\chi^2 : 24.48(46.91)$, df ; 12(17), p : .017(.000), NFI : .98(.95), RFI : .97(.93), IFI : .99(.97), TLI : .99(.95), CFI : .99(.97), RMSEA: .05(.07))로서 모형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

3.2.2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 경로모형(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연구모형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허용도, 그리고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가는 경로는 [Table 3]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05수준에서 모두 유의하다. 그러나 경쟁모형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3.2.3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2. Model Fit Summary

	χ^2	df	p	NFI	RFI	IFI	TLI	CFI	RMSEA HI / LO
A Study on Model (completely mediated model)	24.48	12	.017	.98	.97	.99	.99	.99	.05 .08 / .02
Competition model (Partial mediated model)	46.02	17	.000	.95	.92	.97	.95	.97	.07 .09 / .04

A Study on Model:

RMR: .01, GFI: .98, AGFI: .96, PGFI: .42

Competition model:

RMR: .02, GFI: .97, AGFI: .94, PGFI: .46

Table 3. Unstandardized and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The variables		Unstandardized Estimate	S.E.	C.R.	Standardized Estimate
A Study on Model(completely mediated model)	stereotypes of gender role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49	.10	4.72	.29***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 sexual violence experience		.30	.05	5.77	.42***
Competition model(Partial mediated model)	stereotypes of gender role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49	.10	4.70	.28***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 sexual violence experience		.28	.05	5.17	.40***
	stereotypes of gender role -> sexual violence experience		.08	.08	1.04	.07

Table 4. Standardized Total Effects, Standardized Direct Effects,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Categories		total effect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stereotypes of gender role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28***	.28***	-
stereotypes of gender role	->	sexual violence experience	.18	.07	.11**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	sexual violence experience	.40***	.40***	-

매개모형에서 예측변인이 결과 변인을 설명하는 효과는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예측변인에서 결과변인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와 예측변인이 매개 변인을 거쳐 결과 변인으로 가는 간접효과로 이를 매개효과라고 한다.

냈으므로 성폭력 허용도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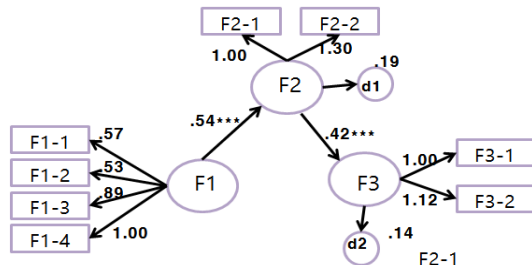
본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폭력 피해 경험과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도에 위치한 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408명(남, 127명, 여, 281명)의 설문을 분석하였고, 설문 척도는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 성폭력 허용도 척도, 성폭력 피해경험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검증 이전에 측정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높아지고, 또한 성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생애초기부터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사이버 음란물 접촉빈도가 높을 때 폭력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대학생의 테이트 관계에서 성폭력 피해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10-13]와 일치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 경험과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완전매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허용도가 성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연

3.2.4 연구모형의 완전매개모형

완전매개모형(연구모형)을 [Fig 3]에 제시하였다.



F1: stereotypes of gender role, F1-1: Sexual attacks, F1-2: Sexual discrimination, F1-3: gender double standards, F1-4: masculinity, femininity, F2: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2-1: Verbal mental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2-2: physical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3: Sexual violence experience, F3-1: Verbal mental Sexual violence experience, F3-2: Physical Sexual violence experience

Fig. 3. completely mediated model by gender roll stereotype, sexual violence experience,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는데 매개모형에서의 z값이 3.48(p<.000)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구모형의 채택되었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제대로 형성이 되면 성폭력 허용도는 낮아지고 따라서 성폭력 피해는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정리하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음란물 공유를 많이 하게 된다는 Seo[14]의 연구에 의하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남성은 강한 성욕을 표현해야만 남자답다는 잘못된 인식과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성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이 여자답다고 착각하게 되면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났듯이 성폭력 피해에는 성폭력 허용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허용도가 형성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그 중 인터넷 접근이 쉬워지면서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이 쉬워지고, 음란물에서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이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충동을 강화하게 되며[15], 더 나아가 성행동으로 표현되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은 움직이는 인터넷의 장으로서 노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이 올바르게 인식 한다면 성폭력 허용도는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성 고정관념이 잘 형성된 대학생은 성폭력 허용도가 낮아지게 되고, 데이트 관계에서 성폭력 피해는 감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인용한다면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시청할지라도 가정에서 가치관 교육이 강할수록 이것이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혼동이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8, 재인용]라고 하였다. 다시말해 성역할 고정관념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출수록, 성폭력 허용도는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내적 작동으로 성폭력 허용도에 작용을 하여 성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간의 관계성을 보다 정교화 시켰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데이트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 뿐만 아니라 성폭력 허용도를 낮춰야 할 것이다. 이미 과거에 형성된 상태도는 한번에 급변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예도 불구하고 안정된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성평등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

제 데이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배려와 존중에 대한 지각을 할 수 있는 성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으로 인식체계의 변화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양성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낮아져 성폭력 피해가 예방될 것이다.

References

- [1] Oe-Sook Yoo, An Explanatory Model of Unwanted Sexual Compliance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Department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The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eutic Techn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2004.
- [2] Hee-Sun Kang, Eun-Sook Lee, Factors Associated with Perpetrations of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7, no. 3, pp.75-84, 2010.
- [3] The police crime statistics, the National Police Agency website,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21>, 2014.
- [4] MBC PD Note, Death calls dating violence,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 2015. 6. 16.
- [5] Yu-Jung Park, A Study on College Students' Gender-Role Identity & Its Relationship to Sex Stereotype and Self-Consciousness,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2000.
- [6] Kyu-man Chae, Psychology of Human Sexual Behavior, Korea : hakjisa 2013.
- [7] Hye Suk Ha, Hwan Wook Chung, sexuality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adolescent, Korea :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ublishing Council 2015.
- [8] Bryant, J., & Rockwell, S. C. Effects of massive exposure to sexually oriented prime-time television programming on adolescents moral judgement. In D. Zillman, J. Bryant, & A. C. Huston(Eds.), Media, Children and the Family(pp. 183~19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94.
- [9] In Sook Choi, Jeong-In Kim, The Effects of sexual violence myths, interpersonal violence acceptance and sex role related attitudes on aggressive sexual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3), pp. 277-300, 2015. 9
- [10] Mi-Ran Park, Relationships among Gender Role Attitudes, Sexual Attitudes, Impulsivity,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7.
- [11] Sun-Mi Park, The Effects of Rape Myth and Date Violence Tolerance on the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Women, Department of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Konyang University Chung Nam Non San Korea, 2010.
- [12] Su-Kyoun Sung, A Study on the Five-year-old Children's

Sex-role Preference and Peer Competence by Their Sex,
Major in Early Child 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2009.

- [13] Hyun-Mi Nam, A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2003.
- [14] Jae-hee Seo, Adolescents' Exposure to Smartphone
Pornography and gender stereotypes and Sexual
self-determinatio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2015.
- [15] So-Jung Yang, A Study on the adolescents' Exposure to
the Internet-Oriented Sexually Explicit Materials and
permissive attitudes : Focus on the O₁-S-O₂-R model
application, The Research Center for Korea Youth
Culture, forum for youth culture vol. 26, pp. 125-151,
2011.

강 차 선(Kang, cha-sun)

[정회원]



- 2003년 8월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경영학사)
- 2006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원 교육학석사(상담심리)
- 2013년 8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수료. 전)
제주 YWCA 여성의 쉼터 원장 역임

<관심분야>

교육학, 상담학, 성관련교육

박 정 환(Park, Jeong-hwan)

[종신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학사) 졸업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석사) 졸업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
학과(교육학박사) 졸업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육공학, ICT, Smart-Education